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한번 맡겼으면 태연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 주인공이 저의 근본임을 일깨워주시고, 주인공이 저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시고, 일체 현상이 주인공의 나뭇잎을 일깨워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님으로부터 한마음 공부를 지도받으면서 체험하였던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쭙어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어떤 분이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남의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그분이 우연히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 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 관계를 판 사람에게 설명드리고 해서 재판이 일단 심리가 종결되고 선고가 남았는데 2월 말에 선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남의 땅 문서를 위조해서 넘겨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순수한 농부였지만 법원을 기만해서 남의 권리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상 관계는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선고가 나는 날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주인공에 관하기를 어떻게 관했느냐 하면은, '비록 그 사람이 남의 땅을 침탈하였다 하지만 이미 본 주인에게 땅이 돌아갔고 그리고 그 사람이 2개월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참회의 생활을 했다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히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60이 넘는 피고인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한번 용서하여서 다시 사회에서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 주인공에게 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 내용을 저희 직원들이 보러 가고 저는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10시 선고였는데 11시 40분경에 저의 직원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법정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와서는 '10시 선고인 재판이 3시로 연기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님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정상 관계는 참작할 점이 많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스스로 남의 땅을, 그것도 법원을 기만해서 등기를 넘겨갔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용서된다면 법원의 권위가 부서지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판사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은산 칠백의 그런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판사님이나 저나 그 피고인이나 모두가 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굳이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겠느냐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님에게 다시 한 번 그 기록을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판사님께서 선고를 3시로 연기한 이유가 어떤 문서 하나를 좀 더 확인 할 게 있어서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서를 직접 찾아가지고 오후 2시 20분경에 다시 그 판사님을 불러 갔습니다.

판사님께 서류를 드리고 나서 판사님이 다시 서류를 검토하시고 그 서류가 기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갖고 간 그 서류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판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도 용서하기는 힘들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본인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판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겠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까지도 저의 마음은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

이고 되지 않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하는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판사실을 나오면서 주인공에게 그렇게 관하고 아침에 그렇게까지 관하고 나왔는데 왜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공에게 주었다 했었다 하면 주인공이 결재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지, 주인공에 맡겨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2시 50분경에 그 판사님이 찾는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도저히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미리 하려고 그래서 다시 찾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판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생각을 바꾸셨노라고 그러시면서 워낙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용서하는 기간을 길게 잡겠노라고 하시면서 3시에 선고를 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시가지고 육신 넘은 노인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사님이 차를 한잔 하시고 저를 사무실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판사실에 들어가니까 그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날 40여 명의 피고인을 선고할 하면서 유독 그 사람만을 3시로 연기를 했고, 그 서류 또한 굳이 그 당시에 판단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는데 3시로 연기했고, 만약에 10시에 그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징역 1년이 그대로 선고되었을 텐데 그 피고인이 상당히 운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판사님도 연세 많으신 분을 그렇게 용서하고 나니까 오히려 당신도 마음이 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마디 헤드릴 컨 반약에 변호사님이 바로 자기 일이었다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일이었다면 어떻게 또 생각을 했을가 이겁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이 그렇게 됐다면 바들바들 떨고 남의 일이면 착 말고고 딱 아주,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남의 일은 되는 데 왜 내 일은 안 되느냐 이러한 겁니다. 그 원인입니다. 바로, 여러번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반면에 그런 틀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들

어볼 수 있는 거죠. ▲질문자: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법(觀法)과 말기는 법에 대해서 한마음 공부할 면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부딪치는 장애들에 대해서 놓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리고 관하면서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로 딱쳐오는 그런 것들이 고로 느껴지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무엇인지, 본래자성불이 무엇인지 자(子)와 부(父)가 상봉하는 순간을 굳이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고 좋은 마음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겁니다. 딱 구멍이 없어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순간 너무나 주인공의 도리에서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감사함은 말로 두루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울산지연 법당에 가서 스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몇몇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주인공의 나뭇잎 얼마나 위대한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주인공의 나뭇잎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의문을 갖느냐 하면, 그것이 주인공의 나뭇잎이라 하지만 그것이 관법(觀法)이라든가 놓는다는가 그러한 믿음의 힘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것이 그 피고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물론 스님께서는 말씀하신 녹음테이프의 비유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의 팔자 운명은 자기가 지어가는 것이지 어디에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뭉쳐져 있고 차안(此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자기 마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하고 없고 그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전담이 됐기 때문에 돌아

가서 여쭙았는데 부와 자가 상봉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며, 부와 자가 상봉하는 그 순간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었는지 한 말씀 바라겠습니다.

▲스님: 예, 아까 염주 얘기 했죠? 지금 사람이 마음과 마음 줄에 꿰어서 육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염주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롭고 없고 말도 없고 하면서도 부와 자가 상봉하고 있는 겁니다. 상봉하면서 서로 가만히 있으면 부가 되고 생각을 냈다 하면 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적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니까 과거 부와 현재 자가 상봉해야 된다. 상봉하지 않으면 가히 채찍이 나한테 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 줄이니까,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니까 자꾸자꾸 그러니까 그것을, 부가 자와 들어 아니게 됐을 때에 묘법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부와 자가 한데 합쳐졌을 때는 자유스럽죠. 좀 생각을 했다 할 때는 그냥 부가 한데 합쳐주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법이고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에 조용하고 정적 이 되고요. 부가 되니까, 자가 생각이 없이 그냥 부가 하나로 되니까 적정입니다. 그래서 이리도 가도 하나요, 저리도 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도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니 다 이렇게 되죠.

▲질문자: 고맙습니다. 주인공이 저의 근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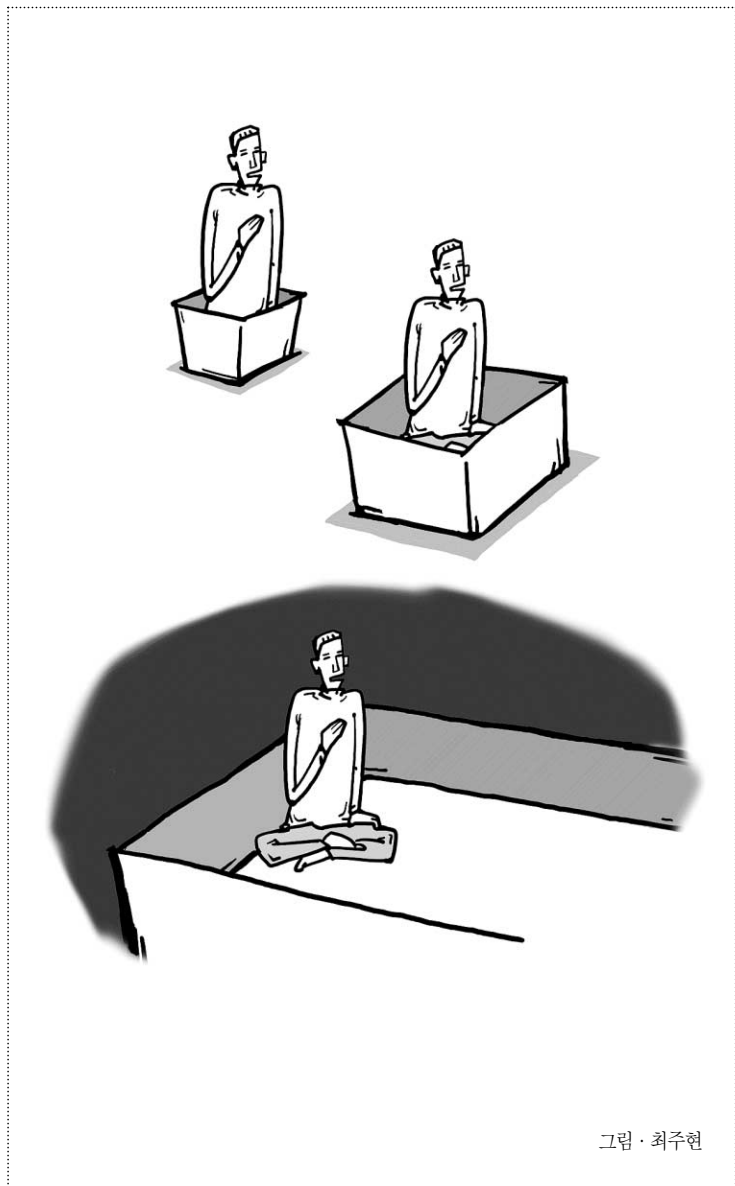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거기다가 되돌려놔야지 만약에 답답한 거를 딱 결론 알고 좋은 거를 딱 결론 안다면 안 돼. 그것은 답답한 거나 좋은 거나 슬픈 거나 모든 안되는 것 되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되놓으라고.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안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구나.' 하고 거기다가 되놓기를 배려요.

▲질문자: 그런데요, 스님 법문하실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나에게, 내가 지금 나이도 어떤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들 거다. 근데...

▲스님: 이거 봐요. 계속 놓는 게 아니라 계속 놓고 돌아가는 거지. 왜 계속 놓기만 하고 있냐? 그럼 목석이게? 그러니까 그 말 때들떠들하는 것도 네놈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게 좀 침착하게 하게끔 해줄 수 없어? 너밖에 없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리고 거기다 말져. 음? 말을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자꾸 자꾸자꾸 하면 상대방이 듣기에 침착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라고. 내가 고쳐준다는 게 아냐. 고치라구!

▲질문자: 예.

▲스님: 그렇게 해봐!
▲질문자: 열심히 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공부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할 하다가 정말 바르게,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만 따르자 하면 그게 바른 것인지. 그런데 이걸 보기도 않고 그래서요. 어떻게...

▲스님: 이거 봐, 나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생활을 지금 당장 가정에서 해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보고 듣고 행하는데 그 생각이 들고 생각이 나고 용도에 따라서 딱치는 대로 생각이 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사람 아닌가? 누구한테 따라 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그거를 다스릴 때, 답답한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남의 일처럼 내 일도 톡 맡기고 놔둘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생활해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그놈이 하는 거라 이 소리지. 그러니까 돌려서 구경물이 들어오면 새 물도 대치해서 써라 이런 식이나 똑같은. **▲질문자3:** 예, 감사합니다. 스님.

▲질문자4: 포항지원에서 왔습니다. 입시 때 올리는 축원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입시 전에 축원을 올리는데, 축원을 스님들께 올리려는 거 하고요, 또 정성금을 불전함에 넣고 스스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그거는 스님네들더러 해달라기보다는 스님네들더러 해달라든 의존하는 거죠. '저 스님네들이 오죽 잘해주려?' 하고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나 직접적이고 간편하게 내가 직접 올리고, 축원문을 찾아가지고 무슨 한 달을 외워준다거나 이런 거 다 한겨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다 헛거는 아니겠지만. 한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적든 많은 내가 정성금을 갖다가 놓고 정성을 들일 때 한마음으로 모든 스님네들, 큰스님이나 작은 스님이나 또는, 자기나 자기 아들이나 모든 일체제 불의 마음이나 모든 걸 한데 합친 게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주인공, 너만이 꼭 이를 수가 있고 침착하게 시험 보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아주 지극하게, 자기 일이나만 자기가 얼마나 침착하게 잘하겠습니까? 그게 제일이지, 벌써 한 다리 걸러가면 손등이 돼. 그러니까 침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스러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란 얘깁니다. 본인들이.

▲질문자4: 감사합니다. 스님, 올해도 시험 보는 우리 한마을 가족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시 생들이요. 그 마음을 한데 다 묶어서 스님 그 자리에 맡겨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아니, 이것 좀 봐요? 또 맡겨 놓고 간대요. 아,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자기가 물을 퍼먹으면 샘물을 그냥 풍풍풍 풍 풍 먹을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데 남편이 때달라고 한다면 그거 목마른 걸 기다려야 하고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질문자4: 스스로도 농사를 짓지만 스님께서도 한마음 내주시시오.

▲스님: 한마음은 본래 돼 있단디깐. 참, 요 모범을 가르치기가 참 어렵군요.

▲질문자5: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제 근본자리에 감사드리며 또 그 근본자리에 있음을 가르쳐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법당에 와서 예불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의식을 행할 때에도, 공공한 점이 많이 있으면서도 '아, 스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그런가보다.' 또 여쭙고 싶어도 또 '혹시 이게 결례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궁금증은 많이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의 보살님이

얘기하실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르면서 하기 때문에 헛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 많은 궁금증 중에서 세 가지만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요, 법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재를 저희들이 지낼 때 우주떡을 굽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홀수로 굽는 것과 또 한 장, 세 장, 일곱 장, 아홉 장 그렇게 정수마다의 어떤 그 뜻이 있는지요? 그리고 왜 꼭 홀수로써 구워야 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더러도 세 조각이 될 수 있고 일곱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보이는 거는 한 조각이지만 보이는 데선 수만 수천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데서 볼 때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먹는 사람도 그것 한 조각 가지고는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곱 조각씩 이렇게 그냥, 일곱 조각을 한 조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권이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산 사람이 먹기 위해

서 일체 우주천 세계에, 도리천 세계에 모두가 한 자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한마음으로 공식(供食)한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알리기도 하거나와 그 영령들은 그 자리에 바로 출현하시기 때문에, 한자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영령은 어느 한 상 차려 놓은 것만이 아니라 전체에 한도량으로 삼아서 한 방식에 앉으시니 그렇게 좋은 일이다 이거죠.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조상들이, 즉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재사 지낼 때, 스님네들이 안 차려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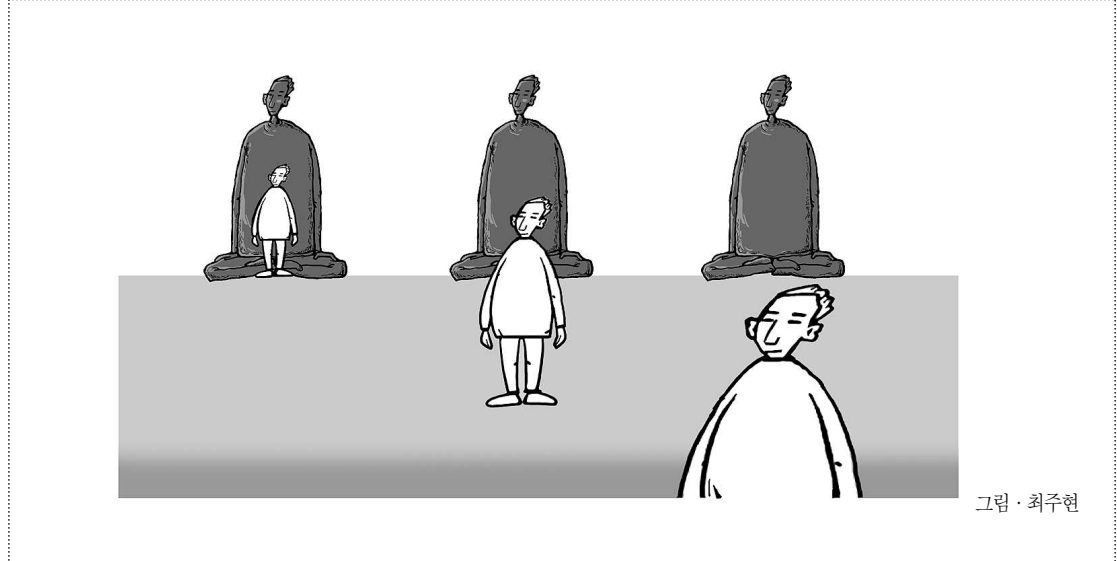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기의 팔자 운명은 자기가 지어 가는 것이지 어디에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 이 세상만사가 변해서 돌아가긴 해도 돌아가는 거는 천차만별로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돌아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집을 데도 보는 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들더라도 작은 걸 볼 수도 있고 큰 걸 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걸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때는 작은 걸 들 때 한 손으로 집고 조금 큰 걸 들 때는 두 손으로 들고 더 큰 걸 들 때 같이 들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저 한 조각을

서 물건들을 만듭니다. 반찬을 하든 떡을 하든 합니다. 그럼 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살기 위해서 물건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 아니라도 될 건데도 물건을 해야만 되죠. 유체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보이는 데서도, 물 자체가 맑은 있어야 되고 깨끗한데 물이 담겨 있어야 이게 되죠. 시시때때로 빈 컵에다가 물을 담아 먹죠. 그래 시시때때로 무엇을 할 때는 그것을 아, 일곱 개든지 세 개든지 한 개든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을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령들이 전부 한마음을 통해

지내든 차려놓고 지내든 스님네들이 아는 것만큼 영령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스님네들이 아, 요 거를 그 사람이 내가지고 얼마를 차리고, 요 상을 얼마 차렸다 이런 거를 스님네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 영령들이 들어와서 스님네 마음을 탁 보니가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것만치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죠.

그러나 여기 스님네들은 우주떡 하나 톡 해놓고, 이 떡은 우주 삼천대천세계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부처님이고 중생이 둘 아니게 다 잡소고도 우주떡 하나가 되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크니까

영령들이 들어와서 스님네 마음속에 탁 들어와 보니가 '아이구, 내 것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에 안도감과 그 시원하고 좋은 마음과 천도되는 마음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질문자5: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49재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이 49재를 부치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7·1째 되는 초재에 회향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1·3·5·7 이렇게 쳐서 할 때도 있고, 또 7·7해서 또 7번을 다 해서 끝낼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님: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육신의 칠성판에, 죽으면 육신을 갖다 칠성판에 모시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여섯 개의 육신(六身)에 의해서 칠성이 아주 잘생겼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해서 그거를 만든 겁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과거로부터 현실로, 미래로부터 또 현실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아주 간편하게,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사십구재 낱가지 자식 된 도리로 정성을 지극하게 하기 위해서 삼세 번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합니다.

▲질문자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불자들 중에서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제사를 저희들 집에 부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집에서 지내는 그 마음과 절에서 지내는 것과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스님: 그 차이점은 있겠죠. 스님네들이 공부를 해서 더 잘 아니까 영령들이 스님네들 마음하고 같이 하니깐 좋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공부하시니까 지극하게 부모 생각을 하고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거는 먹을 거대로 그냥 음식을 해서 지내고, 그냥 제사상에는 간편하게 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주 더더욱 좋죠.

위패를 꼭 모셔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라도 갖다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분의 위패를 써놓지 않는 대신에 전체를 올리든 천 혼문을 썬다. 일체 조상님을 어떠한 분이라도, 할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들의 또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모두 친지 아닌 사람이 없으니가 일체를 다 날여서 나는 될 따윈다. 나는 왜 안 찾느냐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체를 넣으면 됩니다. '일체 조상님들! 모두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십시오.' 하고 천혼문을 써서 해드린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공에 다 맡기시면 되고요.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8쪽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 홈페이지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음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대승불교 관음종 관동불교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이념을 전파하고 불교 교리 및 역학 풍수지리 관상학 성명학 최면학을 배우고자 하시는 계가 신도님이나 스님들의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 기본과정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가. 모집부은 : 역학, 관상학, 성명학, 풍수지리학(현장실습), 최면학 나. 교육기간 : 4개월 완성 주2회 다. 수업일정 : 수, 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라. 개 강 일 : 2005년 4월 20일 예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 이력서 1통
● 반영합판사진 3매

■ 특 전 : 본 대학을 수료하신 분께는 역학 자격증 및 풍수지리학 자격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전화나 서신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신청 강원도 사천면 사기막리 69-1호 성불사
문의 전화 : (033)647-5475 / 647-0324

대승불교 관음종 관동불교대학장 김고명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계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목통, 요통(부위별), 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중앙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종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원

우선으로 판권스팀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수령금과 배송금들의 성원이 힘입어 금번 두리안 대항 수입이개당 무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위하게 되였습니다.

수분이지만 죽지 딱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아 40도도 금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6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